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6. 4. 9.(목) 11:00
(지면) 2026. 4. 10.(금) 조간

배 포 2026. 4. 08.(수) 14:00

격렬비열도항, 서해 영토수호와 불법어업 대응 거점 항만시설 조성

- 서해중부 영해수호 거점항만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-

대산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상혁)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격렬비도에 위치한 국가관리 연안항인 격렬비열도항에 해경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 등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.

격렬비열도항은 서해 중부 영해기점 도서로 국토수호, 선박 긴급피항, 불법어업 관리 등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섬이며,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였고, 2025년 신규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.

당초 서해 중부 해역에는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항만이 없어 태안해양경찰서 경비함정 및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발생 시 신속한 대응·단속에 어려움이 있고, 해양사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인명보호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었다.

이에, 대산청은 해경 및 어업관리단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과 해양경비·어업지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항이 서해중부 영해수호의 거점항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비 27억원과 총사업비 478억원을 투입하여 해경·어업지도선 부두, 호안, 헬기장 등의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박상혁 대산해수청장은 “격렬비열도는 서해 해양영토 관리와 조업어선원 안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해기점”이라며, “영해수호 거점항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	책임자	과 장	황의성 (041-660-7690)
		담당자	주무관 주무관	나근영 (041-660-7693) 한지수 (041-660-7694)